680억 외상 경매 해경-수협 '갈등'

수협직원 등 11명 입건하자 "관행 막으면 어민 타격" 반발

해경이 수산물 경매 때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거액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경락받게 해준 수협 직원과 중도매인 등 11명을 입건하자 수협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협 측은 이번 경찰 수사를 놓고 당일 처분이 불가피한 생선이나 어패류 등의 위판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법적용이란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경 "680억원대 외상 경매는 부실 채권"=여수해경은 23일 수산물 중도매인들에게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외상으로 680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락받게 해준 이모(51)씨 등 여수 수협 직원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도매인 김모(59)씨에게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122억원어치의 수산물을 경락받게 해주는 등 중도매인 44명에게 2년간 총 681억9천만어치의 수산물을 외상 경락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보증인도 없이 수협에서 정한 수산물 외상 거래 한도를 넘겨 47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경락받은 정모(54)씨 등 중도매인 5명도 배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한도를 초과한 외상 거래는 결국 수협 측에 심각한 경영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수협들도 관례 등을 이유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협 "수산물 위판 환경 무시한 법적용"=수협 측은 경찰 수사에 대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생선은 당일 경매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한꺼번에 많은 생선이 위판장에 나올 경우 외상거래가 없으면 가격 폭락으로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은 어민보호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당일 외상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경매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외상으로 중도매상에 넘겨준 수산물값은 연말에 정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국 수협 외상 경락 규정 자체 운영=수협의 외상 경락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수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협 마다 수산물 외상거래의 한도와 상환 시기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협 규정에는 보증금이나 담보물, 연대보증인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락받을 수 있는 수산물의 외상거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여수 수협은 중도매상에게 넘겨진 수산물이 보증금액의 범위(최저 2천만~최고 3억원)를 초과할 경우 매년 연말에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부 수협들은 수산물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매일 정산하는 등 전국의 수협이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다.

목포 수협의 경우 중도매상의 외상거래액이 보증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매 참여가 제한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mihang@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조선대 '민주대행진' 조선대 교수와 학생, 총동창회,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범조선대책위' 1천여명이 23일 오후 민주로에서 '범조선인 민주대행진 및 봄을 여는 문화제'를 가진 뒤, 교내 행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등굣길도 무섭다

계림동서 여고생 둔기 폭행 당하고
지난달엔 여중생 성추행 사건 발생

아침에 학원에 가던 여중생 성추행 사건에 이어 등교하던 여고생이 둔기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등하굣길 학생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E마트 맞은편 한 건물 2층 화장실에 광주 모 고교 3학년 A(18)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건물 5층에 있던 한 교회 전도사 정모(3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기도를 올리던 중 6시30분쯤 비명소리와 비슷한 것을 들었으나 등굣길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로 여기다가, 10분이 흐른 뒤에도 계속돼 내려와 보니 열려있던 화장실 문 틈 사이로 여고생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A양은 얼굴과 머리 뒤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2층 사무실 입구 벽면과 바닥, 계단 곳곳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2층 사무실 입구에는 A양의 가방과 교복 외투, 슬리퍼, 책, 우산 등이 흐트러져 있었다.

A양은 경찰에서 "술냄새를 많이 풍기는 20대 남성이 의자를 같이 좀 들자고 해서 1층에 있던 의자를 들고 3층 계단에 올라갔다. 순간 낌새가 이상해 뒤돌아섰는데 (그 남자가) 돌로 내 머리를 내리쳤고 비명을 지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장실 등 건물 으슥한 곳으로 A양을 끌고 간 점과 A양이 금품을 빼앗기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용의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닌가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서 발견한 깨진 붉은벽돌과 지문 수십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와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인근에서 발견한 검은색 모자 등을 토대로 용의자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학원에 가던 여중생 B(14)양을 끌고 다니며 다리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모(21)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는 등 아침시간 여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사건 현장을 둘러본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 차장은 조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것을 동부경찰에 지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

광주북부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남 모 경찰서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1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17%)로 운전하다 길가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일부 충격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순경은 사고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끼질 하기 싫다고… 철로에 나무토막 '아찔'

광주 동림동서 60대 … 50m 앞 급정거 탈선 모면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철로에 놓인 장애물에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

23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20분께 화물칸 견인용 기관차가 광주 송정역에서 7㎞ 떨어진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 인근 선로에서 길이 2m·지름 22㎝(무게 10㎏)의 아카시아 나무토막〈사진〉과 부딪힌 뒤 멈췄다.

기관사는 나무토막을 50m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를 시도했다. 나무토막은 바퀴와 철도 사이에 끼였으며, 기관차는 충돌지점(?)에서 100m 가량 더 진행한 뒤 멈춰섰으나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탁모(63·북구 동림동)씨는 "농사에 지장을 준 통나무를 철로에 놓아 지나가는 열차 바퀴로 쪼갤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로에 사람이 서있거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시속 70~80㎞ 특히 100㎞ 이상의 고속 운행을 하던 기관차가 급정거를 하면 탈선할 가능성이 높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선로는 광주~송정간을 오가는 단일선으로 여객열차 등이 하루 19회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만일 이날 기관차가 100㎞ 이상으로 고속운행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전담반은 이날 선로에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올려놓은 탁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

화순군수 관사 압수수색

광주지검, 군민 등에 금품 준 정황 확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완준 화순군수의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명의 전 군수 측근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예산 집행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 전 군수 측에서 군민 등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 단계라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 등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4500만원에 산 시계 상자 집에 와서 보니 돌멩이 만

한 가정주부가 수천 만원의 사기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생활정보지 구인난을 보고 광주의 한 시계납품 사무실을 찾아간 김모(여·50)씨는 남·여 2명으로부터 "시계 한 개당 5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에 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금 4천500만원을 건네줬는데, 나중에 시계상자를 열어보니 돌멩이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무덤 20기에 쇠말뚝 수백여개 꽂혀

쌍나팔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 있는 무덤들에 의문의 쇠말뚝 수백여개가 꽂혀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

○…23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노모(62)씨의 선친 분묘에서 길이 1m의 쇠말뚝 38개가 발견되는 등 이 마을 9가구의 묘지 20기에서 쇠말뚝과 쇠꼬챙이 등이 무더기로 발견.

○…경찰은 원한에 따른 소행이거나 이 마을에 대해 잘 아는 정신 이상자, 미신 숭배자 등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말뚝 제거 작업에 착수.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7급 공무원/경찰직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합격 전문학원과 함께하면 합격은 쉽고 빨라집니다!
→ 2009년 광주, 전남 사개(2)직 포함 행정직 0명 포함해 100명 합격, 70%합격률
→ 2008년 광주시 교육행정직 9명 포함해 10명 합격, 90%합격률
→ 2007년 광주, 전남 소방직 12명 포함해 15명 합격, 87%합격률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개강 매월 1일
행정직/교육행정직/세무직 경찰직/소방직 전문
국어 : 승대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경찰전문학원 [251-7959]
합격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igosi.co.kr

의사/약사가 되는 길
PEET/ MEET/ DEET
MDPass 의학원의 특징
특별초청: 임동섭 교수 [일반성물학]
MDPass 의학원 [광주] 303-2453 mdpass.co.kr